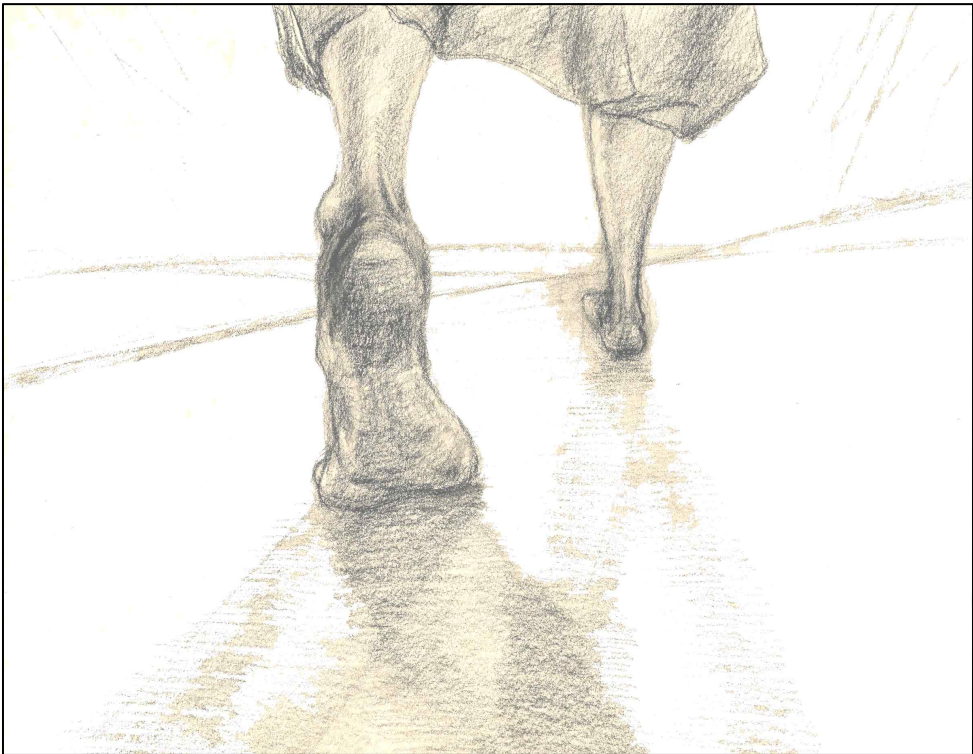


생명이 움트는 언덕

움오름교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 요14:6

움오름교회는 ...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고백 위에
하나님과 이웃의 부름에 응답하며,
높은 산이 아닌 작은 오름을 지향합니다.

성찬 주일예배

2022년도 표어: “나라가 임하시오며”(마 6:10)

인도: 유경호

- * 부름의 말씀 시 37:1-9 인도자
- * 성령임재기원 인도자
- * 찬송 ‘주님을 찬양하라’ 다같이



주 님 을 찬 양 하 라 온 세 상 이 여 주
님 을 찬 양 하 라 온 세 상 이 여 주

- * 성찬기도 다같이
하나님~

고요하고 부드러운 시월입니다. 서늘한 바람에 떨어진 잎새에도, 더 높은 파란 하늘에도 시선이 머무는 가을입니다. 뭔가 모를 저 먼 곳의 시린 그리움을 안고 거룩한 식탁으로 나갑니다.

얻음과 잃음이 교차하는 묘한 추수의 계절에 잃는 것으로 인해 하나씩 더 성숙해 지길 원합니다. 얻는 것으로 인해 더 감사하며, 더 나누는 삶이길 원합니다.

뜨거운 여름을 버티며 화상 입었던 잎새들 사이로 붉은 열매가 드러나듯이, 수고와 아픔 속에서 빛어낸 고귀한 열매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시월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고귀한 주님의 몸과 피로 살기 위해 욕심으로 내달리던 우리 마음을 잃어가는 빛과 향의 성찬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인도자 우리는 지금 주님의 거룩한 식탁에 참여하기에 앞서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이웃과 창조세계 앞에 자행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사하여 주옵소서.

회 중 잃지 않으려 했습니다. 지키려고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있어야 할 것으로 채우지 못했습니다. 잡다한 것과 이별하지 못하고 오래하다 보니 본질과 함께 하는 내밀한 기쁨을 잊고 살았습니다. 요란함과 분주함 속에 바쁘다보니 고독 속에 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잡지 못했습니다. 아, 언제쯤이면 무거운 짐들 내려놓고 주님과 가벼이, 즐거이 이 길 걸을 수 있을까요? 주님, 이런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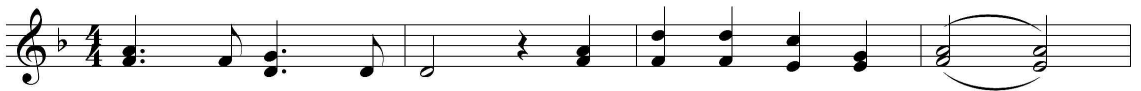
침묵기도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죄와 허물을 고백)

인도자 회개하여 돌이키는 자녀들의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사 55:7, 롬 6:13)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릴지어다” (아멘)



* 찬송	찬 290장	다같이
기도			한혜리
송영	‘우리 기도 들으소서’	다같이
		우리 기도 들으소서 우리 마음 아시오니		
		우리 기도 들으소서 주님의 평화를 내리소서. 아멘		
* 성경봉독	창 12:1-9	인도자
* 송영	‘주의 말씀은’	다같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 됩니다. 아멘		
말씀선포	...	창세기11-‘아브라함과 복’	...	유경호
기도			설교자



찬 미 하 여 라 오 나 의 영 혼 아__



찬 미 하 여 라 거 룩 한 주 이 름

* 성찬으로 초대 집례자

집례자 이 식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초대
이며, 우리가 나누는 떡과 잔은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 되
는 거룩한 사귄입니다.



오 소 서 성 령 이 여 사 랑 의 길 로 인 도 하 소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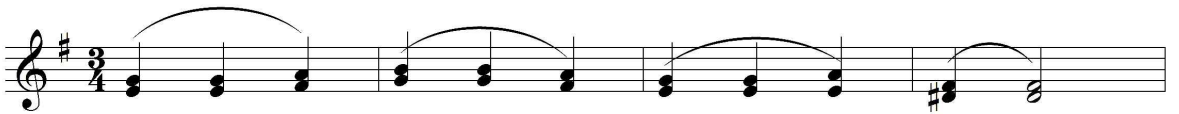
오 소 서 성 령 이 여 우 리 에 게 오 소 서

* 성만찬 참여 다같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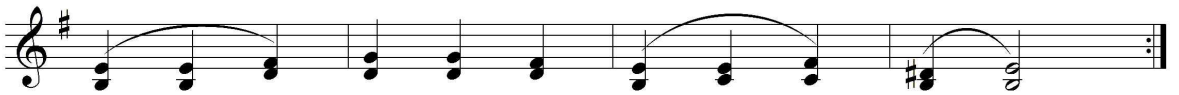
분병 집례 주님께서 잡히던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가지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떡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라,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어지는바 나의 몸, 곧 언약의 몸이니라”

이제 우리 주님의 명령에 따라 주님의 몸된 떡 받는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우 리 는 예 수 를 바 라 보 니 다



우 리 의 주 님 을 바 라 보 니 다

분병 후 기도 집례자

< 떡을 받으신 후 집례자 기도 후 함께 드십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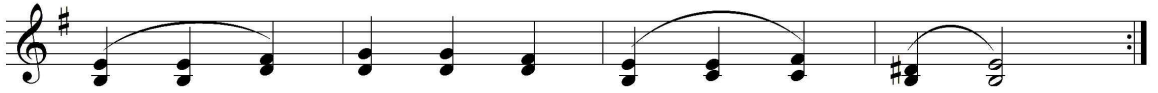
분잔 집례 식후에 또한 주님께서는 잔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후 내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라,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제 우리 주님의 명령에 따라 주님의 피된 잔 받는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우 리 는 예 수 를 바 라 보 니 다



우 리 의 주 님 을 바 라 보 니 다

분잔 후 기도 집례자

< 잔을 받으신 후 집례자 기도 후 함께 드십니다. >

: 마신 잔은 왼쪽으로 전달했다 테이블 위에 두시면 됩니다.

나눔찬양 ‘두려워 말라’ 다같이



두려워 말라 걱정을 말라 주님께서니 아쉬움없네



두려워 말라 걱정을 말라 주님안 에 서

* 예물봉헌 ‘내가 가진 모든 것’ 다같이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의 것이니
나 받은 귀한 선물을 주께 바치리. 아멘

* 봉헌기도 인도자

*봉헌: 김재란

* 결단찬양 ‘우릴 사용하소서’ 다같이
 * 축도 유경호
 Meditation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다같이
 (*바이올린: 한혜리 *첼로: 왕혜진 *피아노: 양재웅)
 환영과 알림 인도자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에겐 소원이 하나있 네 주님 다시오 실 그날까
 지 우리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
 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
 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수없네 우리교회는 이땅의 희
 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뻐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안에 예배 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 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알리는 말씀

1. 오늘은 성찬주일입니다. 떡과 잔을 각각 받으신 후 기도한 다음 같이 드십니다. 마신 잔은 테이블 한쪽에 두십시오.
2. 4/4분기 예배담당표를 확인하시고, 순서에 따라 잘 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3. 9월 결산보고서를 확인해 주십시오.
4. 중보기도(후원아동)
-부상윤(남,11세),전보나(여.10세),도노을(여.8세),최유림(여,8세)
5. 움오름 가족
*쿠퍼아트: <마티네 콘서트 - 클래식으로 여는 가을 아침>
10월 12일(수) am 11시, 성음아트센터

다음 주일(10/9 주일) 봉사위원

예배인도	기도	봉헌	생명의 식탁	meditation연주
송병춘	김재란	윤재선	·	양재웅, 한혜리, 왕혜진

지난 주일(9/25) 예배통계

헌금	
주일헌금	150,000원
감사헌금	300,000원
십일조헌금	200,000원
온라인	
합계	650,000원

우리은행
1005-003-406575
움오름교회